BARUN

정답과 해설

원서 해부 노트 정답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 Part 4 파이널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①	재능 있는 사람은 생각 속으로 물러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 ④ · ⑤는 유니우스가 택하지 않은 조용한 공부의 삶.
2	③	당시 거의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사건이 책 한 권처럼 큰 결과를 낳았다는 글. ②의 역병은 배경일 뿐.
3	②	틀린 사람이라도 sympatheia(모두가 한 몸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요지. ③ 제논과 크리시포스의 생각 ④ always로 지나치게 넓힘.
4	③	글로만 사는 학자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관리. ①은 지나친 해석, ②는 글자 그대로의 오독.
5	④	가볍게 꾸짖고 보내 주기 — 뒤의 let him walk away와 이어짐. ②의 제물 강요는 그가 실제로 고집한 법의 요구.
6	③	①·②·④·⑤는 Marcus, ③은 마르쿠스가 누구보다 먼저 예우한 Junius.
7	④	경찰 · 법 집행 · 공공 건설 · 식량 공급을 감독. ① 즉위 직후 ② 162년은 두 번째 ③ 5년 ⑤ 명예롭게 해냄.
8	⑤	유스티누스는 '유리한(in his favor)' 판결을 기대했다(한 세기 전 성 바울의 석방을 알았기에).
9	①	be ready to V → to tell. ② so ~ that ③ a boy를 꾸미는 분사 ④ 과거완료 ⑤ hope 뒤 목적어절.
10	②	(A) 사람 선행사 + share A with B → with whom (B) 조각상은 세워지는 것 → placed (C) 조각상이 someone을 기리는 능동(뒤에 목적어) → honoring.
11	⑤	확고한 신앙에 '어리둥절해(baffled)' 짜증이 난 것 → delighted는 too frustrated와 어긋남.
12	②	그가 본 것은 공공질서와 자기 권력에 대한 위협뿐. ①은 존중하지 '못했다'와 반대, ④는 지문에 근거가 없다(원서 189쪽 ¶5의 물음).
13	②	That duty = ② 앞 '모든 로마인에게 기대된 의무(the duty)', ② 뒤 Refusing = 제물 명령의 거부. ①에는 duty로 받을 말이 없다.
14	③	재판 장면(신문 · 개인적 반발 · 하늘에 대한 물음)에 186쪽 인용의 독서 습관이 끼어듦.
15	②	주어진 글(구하겠다는 제안) → (B) 거절과 '아직 시간이 있다' → (A) 그 믿음을 증명한 손자 → (C) That grandson = 유니우스.
16	④	남의 다스림을 '피하려(escape)' 권력을 원한 정치가들과 달리, 조언자를 자기 위에 '둔(placed)' 마르쿠스.
서답형	MODESTY	(1) M Marcus Aurelius (2) O 100 AD (3) D Hadrian (4) E five (5) S Justin Martyr (6) T False (7) Y 168 AD → M-O-D-E-S-T-Y. 완성 단어 modesty(겸손 — 190쪽 ¶2 '논쟁 · 구경거리 · 설교에 몸을 두지 않은 사람', 186쪽 인용 '과시하지 않음') — 자기 검증 장치. 함정: J. Epictetus · K. Arulenus · P. 170 AD · V. 162 AD · Q. two · F. True · B. 165 AD.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를 구하려던 젊은이에게는 어떤 정치가가 될지 생각할 시간이 아직 있었다. (there was time + to부정사 / 간접의문문)

→ **There was still time for the young man trying to save him to think about what kind of politician he would be.**

02 유니우스가 이 폭력적인 세상에 등을 돌리고 싶어 했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주어 it + for 의미상 주어 + would have p.p.)

→ **It would have made sense for Junius to want to turn away from this violent world.**

03 이 행성에서 주어진 짧은 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의무다. (owe it to A to V · 가목적어)

→ **You owe it to yourself and to the world to actively engage with the brief moment you have on this planet.**

04 마르쿠스의 손으로 건너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은 바로 에픽테토스 어록의 사본이었다. (It was ~ that 강조구문)

→ **It was a copy of Epictetus's sayings that made its way into Marcus's hands and changed the course of a man's life.**

05 마르쿠스는 세네카가 네로에게 전했어야 했으나 전하지 못한 모든 것을 유니우스에게서 배웠다. (all that / 대부정사 to + 공통 동사)

→ **Marcus learned from Junius all that Seneca was supposed to but failed to impart to Nero.**

06 마르쿠스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저지를 만큼 화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so ~ that + never)

→ **Marcus never became so angry that he did something he later regretted.**

07 그가 어릴 적 세네카에게 품었던 존경은 시간이 흐르며 원망으로 변했다. (had had + 관계대명사 생략)

→ **The respect he had had for Seneca when he was young transmogrified with time into resentment.**

08 크레스켄스에게 고발당한 유스티누스와 그의 제자 여섯 명은 기소되었다. (수동 분사구문(Denounced ~))

→ **Denounced by Crescens, Justin and six of his students were charged.**

09 유스티누스는 유니우스의 철학 저작에 익숙했을 가능성이 크다. (may well have p.p.(추측))

→ **Justin may well have been familiar with Junius's own philosophical work.**

10 루스티쿠스는 너무 짜증이 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었다. (too ~ to V)

→ **Rusticus was too frustrated to show him mercy.**

11 그 준비를 끌어낼 수 있었다면 루스티쿠스는 얼마나 더 나아 보였을까? (가정법 과거완료 의문문)

→ **How much better would Rusticus have come off if he had managed to muster that readiness?**

12 책 한 권을 건넨 평범한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듯, 이 작은 사건도 그러했다. (Just as ~, so too + 도치)

→ **Just as the unremarkable decision to hand Marcus a book would have outsize consequences, so too would this tiny case.**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유니우스 루스티쿠스의 출생 · 사망 / 출신	서기 100년(무렵) / 서기 170년 · 로마
트라세아를 구하려 한 할아버지 / 그해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 / 서기 66년
유니우스가 만족할 수도 있었던 모습	'그저 펜과 잉크의 철학자'
30대 초반 집정관 시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
유니우스가 만난, 에픽테토스의 제자	아리아노스(Arrian)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을 추측한 현대 학자	도널드 로버트슨 등
마르쿠스에게 건너간 책	유니우스 서재의 에픽테토스 어록 사본
루스티쿠스가 마르쿠스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곳	시누에사
마르쿠스가 황제가 된 해 / 유니우스의 역할	서기 161년 / 행정관이자 조언자
입맞춤과 예우 · 조각상을 전한 기록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
두 번째 집정관 해 / 도시 장관 기간	서기 162년 / 5년
유스티누스 재판과 처형의 해	서기 165년
유스티누스를 고발한 철학자 / 그의 학파	크레스켄스 / 견유학파
함께 기소된 제자 수 / 유스티누스가 스토아를 배운 곳	여섯 명 / 사마리아
재판 기록이 남은 문헌	『유스티누스 행전』(The Acts of Justin)
세네카가 네로에게 쓴 글 / 그 해	『관용에 대하여』(On Clemency) / 서기 55~56년
나우시파네스가 나오는 소설의 작가 / 해	나오미 미치슨 / 1939년
같은 선택을 받았던 네 사람	아그리피누스 · 카토 · 트라세아 · 헬비디우스
sympatheia가 거슬러 올라가는 두 사람	제논과 크리시포스
도시 장관에서 물러난 해 / 그 뒤 죽기까지	서기 168년 / 두 해 안

4-3. 통합 사고 문제 — 24장과 25장을 잇는 자리

문제

24장에서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무엇이며, 누군가 나를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면 내 마음이 그 자극에 가담한 것이니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했다(179쪽 ¶1). 24장 182쪽 ¶2에 따르면 마르쿠스는 스승 유니우스 루스티쿠스에게서 에픽테토스 강의록 사본을 빌렸고, 25장에서도 루스티쿠스는 자기 서재의 에픽테토스 어록을 마르쿠스에게 건넸다(185쪽 ¶7 · 186쪽 인용). 그러나 재판정의 루스티쿠스는 '오류를 굳게 붙들고 있는' 쪽은 로마인이라는 유스티누스의 주장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인 듯하고, 너무 짜증이 나서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188쪽 ¶1 · ¶5).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에 비추어 루스티쿠스를 화나게 한 진짜 원인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렇게 답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24장 또는 25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에픽테토스의 눈으로 본 재판정: If Epictetus is right, it was not Justin's words themselves that upset Rusticus but his own _____ about them.

루스티쿠스를 화나게 한 진짜 원인: judgment (judgement · opinion도 인정)
근거 1 (예시): Epictetus taught that "it's not things that upset us, it's our judgment about things," and that if someone succeeds in provoking us, our own mind is complicit, so we should take a moment before reacting.
근거 2 (예시): Yet Rusticus, who had handed Marcus the remembrances of Epictetus from his own library, seems to have taken Justin's claim personally and was too frustrated to give him mercy, so what upset him came from his own judgment rather than from Justin.
채점: 단어(judgment) + 에픽테토스의 가르침과 재판정의 루스티쿠스를 각각 근거로 들 것 + 24 · 25장 어휘(upset, provoke, complicit, impulsively, frustrated, personally, mercy, contempt 등) 포함.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인 듯하다'(seems, 188쪽 ¶1)를 단정하면 감점. 참고: 사본을 24장은 '빌려주었다'(loaned, 182쪽 ¶2), 25장은 '건넸다 · 꺼내 주었다'(given · supplied, 185쪽 ¶8 · 186쪽 인용)로 적어 원서 안에서 표기가 다르다. 마르쿠스가 루스티쿠스에게서 배운 '화해할 준비'(186쪽 인용 · 188쪽 ¶7)나 에픽테토스의 '두 개의 손잡이' 비유(178쪽 ¶2)를 함께 짚으면 가산.